보도자료 Press Release

대구기상대 Daegu Weather Station

배포일시	2013. 11. 22. (금) 10:00 (총 8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구기상대	담 당 자	대장 이 명 수	전화번호	053-952-0366

대구·경북 3개월(12월~2014년 2월) · 1개월(12월 상순~하순) 전망

–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

【 1개월(12월 상순~하순) 전망 요약】

순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2월 상순	평년(0~6℃)과 비슷하겠음	평년(7~12mm)과 비슷하겠음
12월 중순	평년(-1~4℃)보다 낮겠음	평년(4~8mm)과 비슷하겠음
12월 하순	평년(-2~3℃)보다 낮겠음	평년(4~13mm)과 비슷하겠음

【 3개월(12월~2월) 전망 요약 】

월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2월	평년(-1~4℃)보다 낮겠음	평년(15~33mm)과 비슷하겠음
1월	평년(-3~2℃)과 비슷하겠음	평년(18~47mm)과 비슷하겠음
2월	평년(-1~4℃)과 비슷하겠음	평년(25~41mm)과 비슷하겠음

1. 1개월 · 3개월 날씨 전망

○ (12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으며, 서해안 지방에서는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상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중순과 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추운 날이 많겠으며, 서해안 지방에서는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2014년 1월)**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2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엘니뇨전망)** 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최근 평년과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겨울철 동안 정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해수면 온도 편차 : 9월 0.0℃, 10월 -0.2℃, 최근(11월 10~16일) : +0.1℃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이상(-0.4℃이하)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2. 최근 날씨 동향

○ **(9월)** 상순에는 북동지역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중순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최저기온이 높았으며, 일시적으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올랐음. 6~7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10~12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 13~14일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기온은 21.5℃로 평년(21.5℃)과 비슷했으며(평년대비 0.0℃), 강수량은 53.5㎜로 평년(94.8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6.4%).

○ **(10월)** 상순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고, 후반에는 태풍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 5~7일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경북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낮았고, 날씨가 흐린 가운데 태풍 전면에서 난기가 유입되면서 최저기온도 떨어지지 않아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았으며, 15~18일에는 중국 북동지역에서 다가온 차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6~7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동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음. 8일에는 제24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대구·경북에 많은 비가 내렸음. 10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경북에 비가 내렸으며, 11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경북북부 일부지역에 비가 내렸음. 15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구·경북지역에 비가 내렸으며, 경북동해안지방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기온은

15.3℃로 평년(14.2℃)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1.1℃), 강수량은 111.5mm로 평년(42.0mm)보다 많았음(평년대비 265.5%).

○ **(11.1~11.20)**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포근한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아침 최저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나, 중순에는 상층 한기의 유입과 일시적으로 확장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음. 3일과 6~7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지역에 비가 내렸음. 9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으며, 특히 대구·경북지방에 비가 내렸음. 14~15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에, 17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렸음. 18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구·경북남부일부 내륙지역에 눈이 내렸음. 기온은 8.5℃로 평년(8.7℃)보다 비슷했으며(평년대비 -0.2℃), 강수량은 11.4mm로 평년(25.4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44.9%).

3. 최근 가을철(2013.09.01~11.20)날씨 기상특성

○ 평균기온은 15.7℃로 평년(15.0℃)보다 높았으며(평년편차 +0.7℃), 강수량은 233.8㎜로 평년(223.3㎜)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04.7%).

○ 기온변화가 컸던 가을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9월 상순에 일본 동쪽에 기압능이 형성되어 대기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으며, 10월 중순과 하순에 상층에 한기가 유입되어 두 차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음. 11월에는 중순에 일시적으로 확장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졌음.

○ 11월 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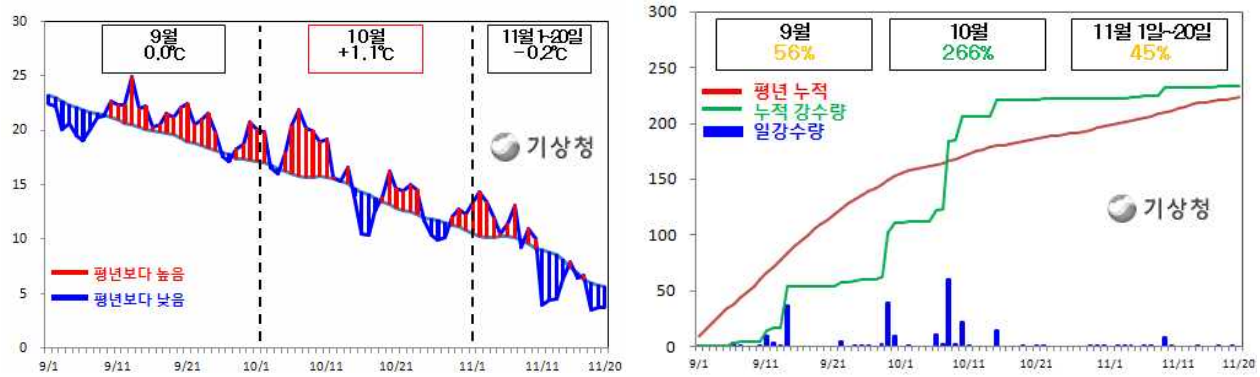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11일에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나타났음.

– 11월 중순 후반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서해안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대구·경북남부일부 내륙지역에 평년보다 이른 첫눈이 내렸음.

○ 15년 만의 10월 태풍

– 서태평양에서 고수온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대류활동이 활발하여 가을철(9.1~11.20)에 총 16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제24호 태풍 다나스(DANAS)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1998년 이후 처음 10월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됨.

※ 2013년 가을철(9.1~11.20) 태풍 발생 수 - 16개 (평년 10.8개)



[그림]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2013.9.1.~11.20)

※ 첨부자료

1. 최근 10년간의 대구·경북지방 겨울철 기후 특성(12월~2월)
2. 최근 10년간의 대구·경북지방 겨울철 특이기상(12월~2월)

【 알림 】

○ 1·3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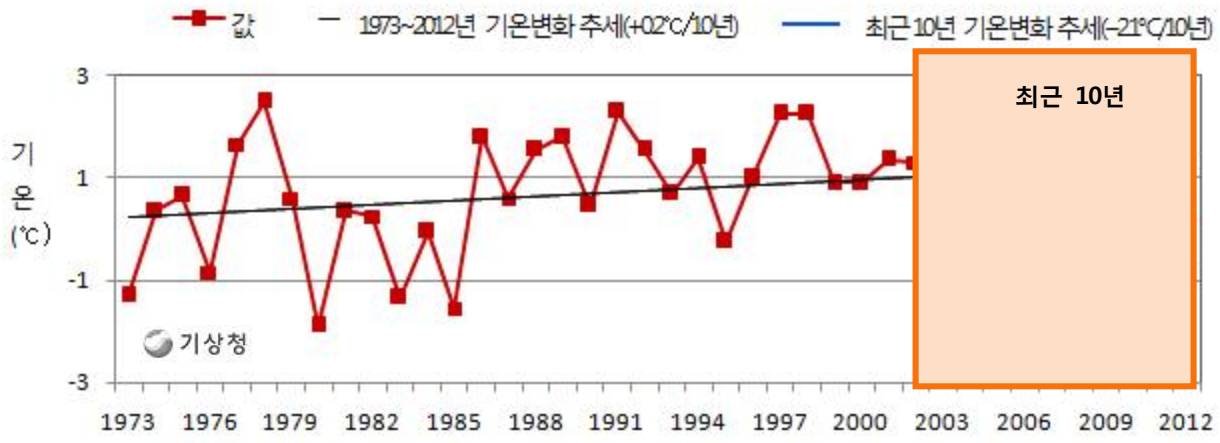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3개월 전망은 2013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첨부 1]	최근 10년간의 대구·경북 날씨특성(12월~2월)

❑ 기온

○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0.9℃로 평년(1.0℃)보다 0.1℃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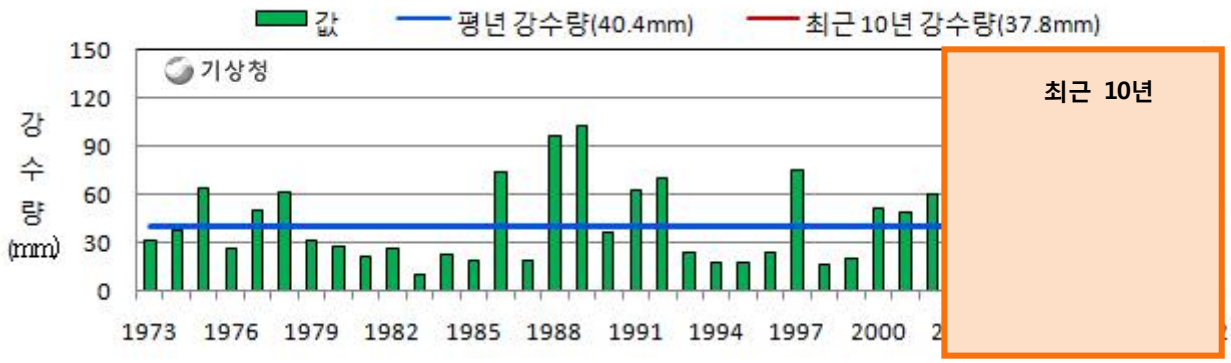
- 최근 10년 평균기온 변화 경향(℃/10년) :-2.1(12월 : -2.4, 1월 :-2.8, 2월 :-1.1)



연도별(1973-2012) 평균기온과 변화 경향(12월~2월)

❑ 강수량

○ 최근 10년 강수량은 37.8㎜로 평년(40.4㎜) 대비 94%를 기록함.



연도별(1973-2012) 강수량(12월~2월)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12월	1월	2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1.2(-0.4)	-0.7(0.0)	2.0(0+0.5)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6.6 / -3.5	4.7 / -5.4	7.7 / -3.2
강수량 / 강수일수	㎜ / 일	21.2 / 4.6	21.6 / 4.0	32.8 / 5.9
일조시간	시간	174.7	184.2	176.7
일최저기온 -10℃ 미만 일수	일	2.5	5.0	2.2
눈 현상일수	일	2.4	3.0	2.6

* 대구·경북 9개(대구, 포항,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지점 평균
* 눈 현상일수는 3개(대구, 포항, 울진) 지점 평균

[첨부 2]	10년간의 대구·경북 특이기상 (12월~2월)

❑ 고온현상

○ (2009년 2월 상순)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기온, 평균 최고·최저기온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 **2009년 2월 상순 : 평균기온 5.2℃, 평년편차 +5.1℃, 1973년 이래 최고 1위**
  평균 최고기온 11.3℃, 평년편차 +5.4℃, 1973년 이래 최고 1위
  평균 최저기온 0.0℃, 평년편차 +5.0℃, 1973년 이래 최고 1위

○ (2007년 1~2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북고남저형의 기압배치에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 **2007년 1~2월 : 평균기온 3.0℃, 평년편차 +2.7℃, 1973년 이래 최고 1위**
  평균 최고기온 9.1℃, 평년편차 +3.1℃, 1973년 이래 최고 1위
  평균 최저기온 -2.1℃, 평년편차 +2.5℃, 1973년 이래 최고 2위

○ (2004년 12월 상순~중순) 12월 하순 전까지 대륙고기압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만주 북쪽으로 지나면서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따뜻한 날씨로 인해 겨울용품 매출이 감소하였고 골프장은 동계 휴장기간 단축으로 특수를 누렸음

- **2004년 12월 상순~중순 : 평균기온 5.4℃, 평년편차 +3.2℃, 1973년 이래 최고 1위**
  평균 최고기온 11.9℃, 평년편차 +3.8℃, 1973년 이래 최고 1위
  평균 최저기온 -0.3℃, 평년편차 +2.5℃, 1973년 이래 최고 2위

❑ 저온현상

○ (2012년 2월)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여 대구·경북지방에도 강한 한파가 지속되었음. 1997년 이후 최저값(1973년 이래 최저 7위)을 기록하였고, 2일과 3일 일부지방에서는 2월 최저기온 극값을 기록하였음. 시설하우스 난방비의 상승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대구와 오징어 등 어획량이 줄어 수산물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음

- **2012년 2월 : 평균최저기온 -5.5℃, 평년편차 -1.8℃, 1973년 이래 최저 7위**
- **2월 최저기온 최저 1위 기록 : 문경 -17.0℃, 울진-13.7℃, 영덕 -13.7 ℃(2월 2일)**
  봉화 -27.7℃, 의성 -22.1℃(2월 3일)

○ (2011년 1월)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강한 한파가 지속됨. 평균 최고·최저기온 편차가 각각 -3.8℃, -4.1℃로 1973년 이래 최저 2위를 기록하였고,

16일 영덕에서는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음. 한파로 인해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 작물 고사와 생육장애가 발생하였고, 수온 하강에 의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음

- 2011년 1월 : 평균기온 -3.9℃, 평년편차 -3.2℃, 1973년 이래 최저 3위
  평균 최고기온 1.3℃, 평년편차 -3.5℃, 1973년 이래 최저 2위
  평균 최저기온 -9.0℃, 평년편차 -3.5℃, 1973년 이래 최저 5위
- 1월 최저기온 최저 1위 기록 : 울진 -14.0℃(1월 16일), 상주 -15.8℃(1월 16일)
  영덕 -15.1℃(1월 16일) - 1973년 이래 가장 낮은 기온

○ (2005년 12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한달 내내 영하를 기록하며 추운 날이 이어져 평균기온과 최고·최저기온 모두 1973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음

- 2005년 12월 : 평균기온 -1.9℃, 평년편차 -3.5℃, 1973년 이래 최저 1위
  평균 최고기온 3.5℃, 평년편차 -3.9℃, 1973년 이래 최저 1위
  평균 최저기온 -6.8℃, 평년편차 -3.5℃, 1973년 이래 최저 1위

○ (2003년 1월 상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웠음. 특히 5~7일은 대구, 경북 평균최저기온이 영하 11.9℃로 매우 낮았으며, 그 첫날인 5일에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잇따랐고, 빙판으로 변한 도로로 인해 차량 접촉사고가 급증,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였음. 6일에는 기온이 더 낮아져 봉화 최저기온이 영하 21.0℃를 기록하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20℃이하의 추운 날씨가 나타났음

- 2003년 1월 상순 : 평균기온 -3.4℃, 평년편차 -2.9℃, 1973년 이래 최저 5위
  평균 최고기온 2.1℃, 평년편차 -2.9℃, 1973년 이래 최저 5위
  평균 최저기온 -8.4℃, 평년편차 -3.2℃, 1973년 이래 최저 2위

❑ 많은 비

○ (2010년 12월 13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새벽에 내린 비로 고속도로가 얼어붙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12월 13일 강수량 : 영천 24.0mm, 포항 23.5mm, 대구 20.0㎜ 등

❑

○ (2011년 12월 8~9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과 동해상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동해안지방에 동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울진을 비롯한 경북북부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음

- 2011년 12월 8일~9일 최심적설(㎝) : 울진 20.6

○ (2011년 2월 11~14일) 북고남저 기압계에 의한 북동기류와 남동쪽 해상의 저기압에 의한 남동기류가 합류되면서 경북동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2월 극값을 경신하였음. 교통이 통제되고 산간지역의 주민이 고립되었으며, 농업 및 축산시설 붕괴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1년 2월 11일~14일 최심적설(㎝) : 울진 65.7, 포항 27.5, 울진, 포항 2월 최심적설 최고 1위**
  대구 8.1 등

○ (2011년 1월 3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북동해안지방에 북동풍이 계속 유입되어,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음. 특히, 포항에는 28.7cm의 눈이 내려 관측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지방 국도 등에 교통통제가 있었음

- **2011년 1월 3일 최심신적설(㎝) : 포항 28.7, 1월 최심적설 최고 1위**
  울진 12.4, 구미 4.3

○ (2010년 12월 26~28일)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고, 상층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북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2010년 12월 26일~28일 최심적설(㎝) : 구미 6.5, 대구 2.9**

○ (2010년 1월 4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육로운송 의존도가 높은 각종 산업분야의 피해가 속출하였음

- **2010년 1월 4일 최심 신적설(㎝) : 울진 11.0, 안동 7.3, 상주 6.5, 구미 6.0, 대구 2.7 등**

○ (2006년 12월 17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곳곳과 주요 등산로의 입산이 전면 통제되었고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2월 17일 최심 신적설(㎝) : 울진 9.4, 영주 2.3, 봉화 1.5 등**

○ (2005년 1월 16일) 동해상에서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버스 추돌 사고등이 발생하였으며, 지방 국도 및 바닷길이 통제되었음

- **2005년 1월 16일 최심신적설(㎝) : 울진 20.4, 1월 최심신적설 최고 2위**
  포항 16.2, 1월 최심신적설 최고 3위

❑ 황사

○ (2009년 12월) 총 3번의 황사가 관측되었으며, 그 중 12월 25~26일 성탄절에 관측된 황사는 역대 12월 관측 농도 중 최고를 기록하며 황사특보가 발표되었음. 그 외는 모두 옅은 황사였음

- **2009년 12월 25~26일 주요지점 시간평균(㎍/㎥) : 안동 468, 대구 399, 영덕 392**

○ (2007년 12월) 12월 29일에 짙은 황사가 관측되었음. 12월에 관측된 황사는 2001년 이후 6년 만이었음